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롬 8:18~25

자녀됨의 특권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 양자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자녀가 되게 하는 실제적인 과정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임신과 같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잉태된 생명은 해산할 때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믿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수속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명목상의 자녀가 아닌 법적인 특권을 가진 실제 상속자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가 아니면 투자하기를 꺼립니다. 잘 돌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라면 그가 비록 못났을 지라도 끝까지 돌보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영광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특권은 동시에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과 영광만을 받는다면 그는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녕 가족이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따라서 고난이란 영광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후계자의 축복, 이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후계자가 될 만큼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나 여자가 혼자만 영광을 받고 상대방과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부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영광만 받고 부인에게는 고난만 준다면 그것은 부부가 아니라 주인과 종입니다. 부부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자기 부인을 종과 같이 대합니다. 집안 살림하고 아기 키우는 일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정말 부부는 고난도 같이 나누고 영광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도 같이 나누지만 고난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같이 영광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영광을 저울질 해보면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잉크 한 방울이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받을 영광은 태평양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얻게 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을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통을 더 이상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이 씨가 되어 영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겹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기 원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앞으로 받을 영광이 현재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을 때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 보기로 작정한 사람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의 눈은 빛나고 그의 생각은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에서 죽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의 고대(苦待)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들만 양자됨의 구속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이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대’한다는 것은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목을 길게 빼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람만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는 축복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공기가 좋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죄를 지은 땅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죄를 짓지 않았을 때의 땅은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자연은 천국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오염되어 쓰레기통같은 지구를 인간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피조물

인간의 타락 이후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육신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운동은 기독교인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신음하는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킬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이라는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원해도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를 말합니다. 피조물은 이 허무한 곳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은 인간의 죄입니다. 탐욕입니다. 따라서 지구를 구하고 환경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도, 땅도, 피조의 세계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간의 구원과 환경의 구원을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맑게 보이는 것입니다. 꽃이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는 날, 어찌나 새소리가 좋든지! 나뭇잎들이 다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이 신음하며 고통받는 소리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은 외롭고 고독하며 탄식하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피조물의 세계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존층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지구를 구하겠습니까? 누가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사도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과 탄식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받은 우리들도 피조물들과 같이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성령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몸입니다. 몸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의 완성까지도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잉태를 한 것입니다. 잉태된 것은 해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잉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케 하신 이 교회는 언제 해산되었습니까? 오순절날 해산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구원이 잉태된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이 해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육신이 죄의 종노릇하는데서 벗어나서 의에 종노릇

하며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믿고 성령이 충만하여 육신의 본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늙어가고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새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현 몸은 땅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도 이러한 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까지는 이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육신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몸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면서 성령의 도구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영이 거룩한 것처럼 육신도 거룩하게 하옵시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